

돼지 콜레라, 돼지 전염성

1986. 10. 10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발표

-환절기를 맞아 최근 돼지콜레라 및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 지역에 따라.....○
-이미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10월10일자로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양축 농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돼지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지난 여름에도 돼지콜레라가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였으며 8~9월 사이에 전북, 경기지역에서 4건 60여두가 발생하여 앞으로 환절기를 맞아 더 번질것이 우려되니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요증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7~21일 사이에 거의 죽는다.

○체온이 40~41°C로 오르고 몇일이 지나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 죽는 만성적 경우도 있다.

○처음에 열이나며 사료를 먹지않고 곱이 섞인 굳은똥을 누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한다.

○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리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어 죽게된다.

2. 예방조치

○새끼돼지를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돼지 기르는 농장에서 구입하여 2~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 주사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돼지우리와 그 주변은 가성소다등 강력한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내 출입을 제한 한다.

3. 예방주사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을때(긴급할때)

위장염 발생 주의보 발령

- 분만후 첫젖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주사
-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이 없을때
- 생후 30~40일령에 1차
- 생후 50~60일령에 2차 } - 두번주사
- 번식용 어미돼지
- 접붙이기 2~4주전에 1회주사
- 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

4. 농수산부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돼지콜레라 일제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돼지 기르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실시해야 한다.

돼지 전염성위장염

지난 겨울에도 돼지 전염성위장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9월 들어 경기지역에서 30두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환절기를 맞아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점차 발생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농가에서는 돈사 내외의 소독 및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요증상

○어미돼지나 새끼돼지가 함께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한다.

○같은 돈사의 새끼돼지는 거의 동시에 발병한다.

○설사는 회백색 및 백녹색의 심한 물설사이다.

○설사는 보통 4~5일 지속한다.

○생후 1주일내의 새끼돼지는 거의 100%죽으며, 10~20일령 돼지는 50%이상 죽고, 병에 걸렸던 돼지는 회복이 되더라도 발육이 늦어진다.

○비육돈과 번식돈은 거의 회복되나 병원체를 장기간 배설한다.

2. 예방조치

○일단 발병하면 방역이 어려우니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새끼돼지를 시중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돼지기르는 농장에서 구입하여 2~3주일간 따로 기른다.

○돈사내외의 소독의 철저와 외부인 출입을 제한 한다.

○겨울철에는 돈사의 보온관리를 잘 해준다.

○어미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을 부여시켜 젖을 먹는 동안 새끼돼지의 감염 발병을 예방한다.

○어미돼지의 예방접종은 분만 5~7주전에 1차접종하고 분만 2~3주전에 2차접종한다.

○백신접종은 매번 2ml씩 근육내에 주사하고 반드시 2회를 하여야 효력을 얻을수 있다.